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일기 텍스트에 나타난 응결성과 응집성 양상 분석

제소양¹

《 요 약 》

본 연구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작성한 일기 텍스트를 대상으로 응결성과 응집성의 양상을 분석하여 초등 저학년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텍스트 조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일 학급 학생이 작성한 일기 16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접속 표현, 지시 표현, 어휘 반복과 같은 응결성 장치의 사용 양상과 사건 전개 구조 및 문장 간 의미 연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응결성 측면에서는 접속 표현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어휘 반복과 지시 표현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그리고’, ‘그래서’와 같은 접속 표현이 사건 간 관계를 연결하는 주요 장치로 사용되었다. 응집성 측면에서는 사건 전개와 감정 표현이 함께 나타나는 경험 서술형 구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일부 텍스트에서는 문장 간 의미 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의미 연결이 약화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초등 저학년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응결성과 응집성의 특징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초등학생 글쓰기, 일기 텍스트, 응결성, 응집성, 텍스트 조직

1. 부산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 yoshi77@korea.kr (주저자)

I. 서론

글쓰기는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언어로 조직하여 표현하는 중요한 의사소통 활동이며, 학교 교육에서 학습자의 사고력과 표현 능력을 발달시키는 핵심적인 언어 활동이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글쓰기는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사고 조직 능력을 함께 발달시키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기 쓰기는 초등학교 국어교육에서 널리 활용되는 글쓰기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면서 서사적 글쓰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교육 활동으로 평가된다.

초등학생의 글쓰기는 문장 단위 표현 능력뿐만 아니라 문장 간 의미 관계를 조직하여 텍스트를 구성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텍스트언어학에서는 텍스트가 하나의 의미 있는 담화 단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문장 간 결속을 형성하는 응결성(cohesion)과 의미적 일관성을 형성하는 응집성(coherence)이 필요하다고 본다. 응결성은 접속 표현, 지시 표현, 어휘 반복 등과 같은 언어적 장치를 통해 문장 간 결속을 형성하는 요소이며, 응집성은 텍스트 전체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의미 구조와 관련된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등학생의 글쓰기를 분석하는 것은 학생이 경험을 어떻게 조직하고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초등 저학년 학생의 글쓰기는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하며, 실제 학생 일기 텍스트에서는 접속 표현을 통해 사건이 연결되거나 어휘 반복을 통해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반면 일부 텍스트에서는 문장 간 의미 관계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사건 전개가 단절되는 사례도 확인된다. 이러한 특징은 초등 저학년 글쓰기에서 텍스트 조직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작성한 일기 텍스트를 대상으로 응결성과 응집성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초등 저학년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텍스트 구성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접속 표현, 지시 표현, 어휘 반복과 같은 응결성 장치의 사용 양상과 사건 전개 구조 및 의미 연결 방식과 같은 응집성 특성을 중심으로 학생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초등 저학년 글쓰기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일기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응결성 장치의 사용 양상은 어떠한가?
2.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일기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사건 전개 구조와 응집적 의미 연결의 특징은 어떠한가?

3.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일기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의미 연결의 문제점과 특징은 무엇인가?

II. 선행 연구

초등학생의 글쓰기와 일기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결속 표현의 사용 양상과 글쓰기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안정아와 남경완(2016)은 초등학생 일기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접속 표지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접속 표지를 접속부사, 준접속표현, 문두 부사어로 구분하여 학년별 사용 빈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접속부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접속 표지의 사용 비중과 전체 출현 빈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접속 의미 유형을 나열, 전환, 인과, 대립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나열과 인과 구조는 사건 전개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이정란과 오재혁(2019)은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의 일기 텍스트에 나타난 접속부사의 사용 양상과 발달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접속부사의 사용 빈도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감소하다가 4학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접속부사의 유형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양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그래서’와 같은 접속부사의 오류 사용이 저학년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문어적 접속 표현은 상위 학년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김정선(2020)은 초등학생의 일기 텍스트에 나타난 결속 표지의 발달 양상을 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결속 표지를 접속 표현, 연결 어미, 지시 표현으로 구분하여 형태와 의미 발달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접속 표현은 저학년 시기에 대부분 출현하였으며 의미 유형에서는 ‘이유’와 ‘순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또한 지시 표현에서는 ‘그’ 계열 표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초등학생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결속 표현의 사용 양상과 발달 과정을 밝히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접속 표현이나 결속 표지의 출현 빈도만으로는 학생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직되고, 문장들이 어떤 의미 관계를 이루며 하나의 텍스트를 형성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접속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사건 간 인과 관계나 정서적 흐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텍스트의 의미 연결이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 일기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응결성 장치의 사용 양상뿐 아니라, 사건 전개 구조와 문장 간 의미 연결 방식과 같은 응집성 요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2학년의 일기 텍스트는 접속 표현과 같은 표면적 결속 장치의 사용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면서도, 사건의 인과 관계나 정서적 흐름을 텍스트 전체 수준에서 조직하는 능력은 아직 발달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응결성과 응집성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기에 적절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Ⅲ. 이론적 배경

1. 텍스트성과 텍스트언어학

텍스트언어학에서는 문장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연결된 언어 단위를 텍스트(text)로 본다. 텍스트는 문장 간 의미 관계와 구조적 연결을 통해 하나의 통일된 담화 단위를 형성하며, 이러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텍스트성(textuality) 개념이 제시되어 왔다.

Beaugrande와 Dressler(1981)는 텍스트가 텍스트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으로 응결성(cohesion), 응집성(coherence), 의도성(intentionality), 용인성(acceptability), 상황성(situationality),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정보성(informativity)의 일곱 가지 텍스트성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응결성과 응집성은 텍스트 내부의 구조와 의미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장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의미적으로 조직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응결성과 응집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지만 각각 다른 차원의 텍스트 특성을 설명한다. 응결성은 텍스트의 표면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결속 장치를 의미하며, 응집성은 텍스트 전체에서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의미적 일관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개념은 텍스트가 하나의 통일된 의미 단위를 형성하는 데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텍스트언어학에서는 응결성과 응집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표면적으로는 접속 표현이나 어휘 반복을 통해 문장이 연결되어 보더라도, 사건 간 의미 관계가 충분히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응집성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텍스트 분석에서 언어적 결속과 의미적 조직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2. 응결성(cohesion)

응결성은 텍스트 표면에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언어적 장치를 의미한다. Halliday와 Hasan(1976)은 응결성을 텍스트 내부에서 나타나는 문장 간 의미 관계가 언어적으로 실현된 형태로 설명하였다. 즉 응결성은 문장 간 의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적 장치를 통해 형성된다.

Halliday와 Hasan은 응결성 장치를 크게 지시(reference), 대용(substitution), 생략(ellipsis), 접속(conjunction), 어휘적 결속(lexical cohesion)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접속 표현은 사건 간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며 텍스트의 전개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한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의 반복을 통해 의미 연결을 형성하는 어휘적 결속 역시 텍스트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등학생의 글쓰기에서는 이러한 응결성 장치가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접속 표현을 통해 사건을 순차적으로 연결하거나 동일한 어휘를 반복하여 의미를 유지하는 방식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초등 저학년 학생의 글쓰기에서 사건이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되는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안정아와 남경완(2016)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 일기 텍스트에서 접속 표지가 주요 결속 장치로 나타나며,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와 같은 접속 부사가 높은 비중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초등학생 글쓰기에서 문장 간 연결이 접속 표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초등 저학년 학습자의 글쓰기에서는 비교적 단순하고 직접적인 결속 장치에 의존하여 문장 간 의미 관계를 드러내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복잡한 의미 조직보다는 사건의 순차적 나열에 기반하여 텍스트가 구성되는 초기 글쓰기 단계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일기 텍스트의 응결성 분석을 위해 접속 표현, 지시 표현, 어휘 반복을 중심으로 문장 간 결속 장치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응집성(coherence)

응집성은 텍스트 전체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의미적 일관성을 의미한다. Beaugrande와 Dressler(1981)는 응집성을 텍스트를 구성하는 의미 요소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하

나의 통일된 의미 구조를 형성하는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즉 응집성은 텍스트의 표면적 언어 표현이 아니라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의미적 관계와 관련된다.

응집성은 사건 전개 구조, 의미 연결, 배경과 사건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형성된다. 특히 서사적 텍스트에서는 사건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되거나 인과 관계를 통해 연결될 때 높은 응집성을 보인다. 반대로 사건 간 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거나 의미 연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응집성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

초등학생의 일기 텍스트에서는 사건 중심의 서술이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건이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되는 구조가 흔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초등 저학년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글을 구성하는 초기 단계의 글쓰기 특성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일부 텍스트에서는 사건 간 의미 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거나 문장 전환이 자연스럽게 않아 의미 연결이 약화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특히 응집성은 접속 표현의 사용 여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표면적 연결 장치가 존재하더라도 사건 간 인과 관계나 의미적 연결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응결성과 응집성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초등 저학년 학생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의미 연결 문제는 단순한 문장 연결의 부족이 아니라, 사건 간 관계를 조직하는 텍스트 수준의 의미 구성 능력이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학생 글쓰기에서는 접속 표현과 같은 표면적 접속 장치가 사용되더라도, 그 장치가 사건의 흐름과 감정의 전개를 충분히 조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 일기 텍스트의 분석에서는 응결성 장치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전개 구조와 문장 간 의미 연결, 제목과 내용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IV.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작성한 일기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자료는 동일 학급 16명 학생이 수행평가 활동에서 작성한 일기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일기는 국어과 3단원 ‘겪은 일을 나타내요’ 단원에서 이루어진 글쓰기 활동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학생들은 하루 동안 겪은 일을 떠올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의 생각과 느낌을 중심으로 일기를 작성하였다.

분석 대상은 총 16편의 일기 텍스트이며, 학생들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서술적 글이다.

<표 1> 분석 대상 텍스트 규모

항목	내용
분석 대상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일기
일기 수	16편
총 문장 수	130문장
평균 문장 수	약 8문장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작성한 원문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맞춤법 교정이나 문장 수정은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2. 자료 수집

연구 자료는 초등학교 2학년 국어과 수업에서 실시된 일기 쓰기 수행평가 활동을 통해 수집하였다. 해당 수행평가에서 작성된 16명 학생의 일기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학생들이 작성한 일기는 하루 동안 겪은 일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와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서술한 글이며, 연구에서는 학생이 작성한 원문 텍스트를 그대로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에서는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이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각 일기에는 번호(자료1~16)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 기준 및 절차

본 연구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일기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응결성(cohesion)과 응집성(coherence)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언어학의 관점을 적용하였다.

응결성 분석에서는 문장 간 결속을 형성하는 주요 언어적 장치로 접속 표현, 지시 표현, 어휘 반복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응집성 분석에서는 텍스트의 의미 조직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 전개 구조와 문장 간 의미 연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문장 간 의미 관계가 충분히 설명

되지 않아 사건 전개가 단절되는 경우를 의미 연결 문제로 분석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생 일기 텍스트를 문장 단위로 분리하였다.

각 문장에서 나타나는 응결성 장치(접속 표현, 지시 표현, 어휘 반복)를 확인하였다.

텍스트 전체에서 나타나는 사건 전개 구조와 의미 연결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빈도와 특징을 도출하였다.

〈표 2〉 응결성 및 응집성 분석 기준

분석 범주	하위 요소	분석 내용
응결성	접속 표현	문장 간 논리 관계를 연결하는 표현
	지시 표현	앞선 문맥을 지시하는 표현
	어휘 반복	동일 또는 유사 어휘 반복
응집성	사건 전개 구조	시간 순 사건 나열 여부
	의미 연결	문장 간 인과·논리 관계

V. 연구 결과

1. 응결성 장치 사용 양상

학생 일기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응결성 장치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응결성 장치 사용 빈도

응결성 장치	사용 빈도	비율(%)
접속 표현	23	50.0
어휘 반복	14	30.4
지시 표현	9	19.6
합계	46	100

분석 결과, 일기 16편에서 확인된 응결성 장치는 총 46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접속 표현이 23회(5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어휘 반복이 14회(30.4%), 지시 표현이

9회(19.6%)로 나타났다.

접속 표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학생들이 사건을 이어 서술할 때 문장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그래서’와 같은 명시적 표현에 기대어 드러내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이는 문장 간 연결 의식이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곧바로 응집적 의미 조직이 충분하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일부 일기에서는 접속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사건의 원인이나 전환 맥락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의미 연결이 약해지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한편 어휘 반복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되풀이함으로써 글의 중심 경험이나 정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지시 표현은 앞선 내용을 가리키며 문맥을 잇는 기능을 하였으나 그 사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분석 대상 일기에서는 접속 표현을 통한 표면적 연결이 두드러지며, 어휘 반복이 이를 보완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가. 접속 표현

접속 표현은 총 23회(50.0%) 나타나 응결성 장치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분석 대상 일기에서 문장 간 의미 연결이 주로 접속 표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접속 표현의 사용 빈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서’가 12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그래도’ 4회, ‘그리고’ 3회, ‘그런데’ 2회, ‘왜냐하면’ 2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일기에서 사건의 흐름을 서술할 때 원인과 결과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그래서’는 앞 문장에서 제시된 상황이나 사건의 결과를 설명하는 인과 관계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그리고’는 사건이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래도’와 ‘그런데’는 앞 문장과 대비되는 상황이나 예상과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대조적 의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편 ‘왜냐하면’은 앞서 제시된 내용의 이유를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료 1] “그래서 아빠가 졌다. 그리고 내가 이겼다.”

[자료 3] “그래도 재밌게 신나게 생일파티를 했다.”

[자료 6] “그래서 김스를 2개월 동안 했다.”

[자료 6] “그런데 무릎뼈에 금이 갔다고 했다.”

[자료 14] “왜냐하면 예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 사례는 초등 저학년 학생의 일기에서 접속 표현이 사건의 전개를 이어 주는 핵심 장치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예컨대 [자료 1]의 ‘그래서’, ‘그리고’는 놀이의 결과를 짧게 압축하여 제시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이어 주고, [자료 3]의 ‘그래도’는 앞서 제시된 아쉬움이나 부정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일파티를 긍정적으로 이어 가는 정서적 전환을 드러낸다. 또한 [자료 6]의 ‘그런데’, ‘그래서’는 진단과 그 결과를 순서 있게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자료 14]의 ‘왜냐하면’은 자신의 선택이나 감정에 이유를 덧붙이려는 시도를 보여주지만, 설명이 충분히 확장되기보다는 한 문장 안에서 압축적으로 제시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사건 간 관계를 드러내려 하고 있으나, 그 관계를 세부적으로 설명하거나 정교하게 조직하는 능력은 아직 발달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지시 표현

지시 표현은 총 9회(19.6%) 나타났으며, 주로 ‘이’, ‘그’와 같은 지시어를 통해 앞서 제시된 대상이나 상황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전체 응결성 장치 가운데에서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료 9] “그 곡은 왕별의 비행이다. 이 곡은 아주 어려운데...”

[자료 11] “그런 장난을 많이 했다.”

이와 같은 지시 표현은 앞 문장의 내용을 가리키며 문장 간 의미 연결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분석 대상 일기에서는 이러한 표현의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 저학년 학생의 글쓰기에서 지시 표현보다는 접속 표현이나 어휘 반복을 통한 연결 방식이 더 많이 활용됨을 보여준다.

다. 어휘 반복

어휘 반복은 총 14회(30.4%) 나타나 접속 표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초등 저학년 학생의 일기에서 문장 간 의미 연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어휘 반복은 글의 중심 내용을 유지하고 문장 간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어 주는 응결 장치로 기능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료 8] “비행기를 타서 무서웠다. 비행기를 타서 무서웠다.”

[자료 12] “엄마가 생글생글 웃었다…”

이처럼 동일 어휘의 반복은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강조하는 동시에 문장 간 의미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어휘 반복은 제한된 어휘 자원을 활용하여 의미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보완적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텍스트 조직 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해석된다.

2. 접속 표현 의미 유형

학생들이 사용한 접속 표현을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접속 표현 의미 유형

접속 의미 유형	예	빈도
나열	그리고	3
인과	그래서	12
전환	그런데	2
설명	왜냐하면	2
역접(대조)	그래도	4
합계		23

분석 결과 접속 표현은 총 23회 나타났으며, 의미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서’가 12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역접 관계의 ‘그래도’가 4회, 나열 관계의 ‘그리고’가 3회, 전환 관계의 ‘그런데’와 설명 관계의 ‘왜냐하면’이 각각 2회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 저학년 학생의 일기에서 사건의 흐름을 서술할 때 앞선 상황의 결과를 설명하는 인과 관계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됨을 보여준다. 또한 ‘그리고’를 통해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거나 ‘그래도’, ‘그런데’를 사용하여 상황의 변화나 대비를 나타내는 양상도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일기를 작성할 때 사건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글을 조직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3. 응집성 구조 유형

학생 일기 텍스트의 사건 전개 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형이 나타났다.

〈표 5〉 텍스트 사건 전개 구조

구조 유형	특징	빈도
사건 나열형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을 나열하여 서술	6
경험 서술형	사건 전개와 함께 자신의 느낌·감정 표현 포함	8
설명 혼합형	사건 서술 중 이유·설명 내용이 함께 나타남	2
합계		16

분석 결과, 일기 16편 가운데 경험 서술형 구조가 8편(50.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건 나열형 구조 6편(37.5%), 설명 혼합형 구조 2편(1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 저학년 학생의 일기 글쓰기에서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따라 경험을 서술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함께 표현하는 방식이 주요한 텍스트 조직 방식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가. 사건 나열형 구조

사건 나열형 구조는 총 6편(37.5%)에서 나타났다. 이 유형의 일기에서는 하루 동안 경험한 사건이나 활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특정 활동을 한 뒤 이어서 다음 활동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나열하며 글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사건 간 인과 관계나 설명보다는 행동의 진행 과정 자체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경험한 일을 기억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는 기초적인 서술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사건 간 인과 관계를 조직하기보다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보를 배열하는 ‘연속적 서술 전략’이 우선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료 13] “오늘 학교에 왔다. 가방을 정리했다. 이제 독서 시간이 되었다. 이제 수업 시간이 되었다.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다. 이제 운동장에 갔다.”

[자료 13]에서는 ‘이제’가 반복되면서 학교생활의 시간 흐름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지만, 각 사건의 중요도나 중심 경험은 두드러지지 않은 채 기억나는 순서에 따라 배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학생은 하루의 흐름을 충실히 따라가며 기록하고 있으나, 중심 사건을 선택하여 부각하기보다는 연속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글을 조직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료 8] “겨울방학 때 가족이랑 공항에 갔다. 이모를 기다리러 공항의 자리에 앉았다. 밥도 먹고 이모들 모두 와서 체크인했다. 짐 검사를 하고 몸 검사도 했다. 멋진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를 탔다.”

[자료 8] 역시 공항 도착, 대기, 식사, 체크인, 검사, 탑승의 순서가 이어지므로 시간적 연속성은 유지되지만, 마지막의 ‘비행기를 타서 무서웠다’는 감정이 앞선 사건들과 충분히 연결되어 설명되지는 않는다. 이는 사건의 나열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건과 감정 사이의 의미 관계를 조직하는 데에는 아직 제한이 있음을 보여준다.

나. 경험 서술형 구조

경험 서술형 구조는 총 8편(50.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유형의 일기에서는 사건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함께 표현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어떤 활동을 한 뒤 “재미있었다”, “기뻐다”, “좋았다”와 같은 감정 표현이 이어지는 형태가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낀 감정이나 평가를 중심으로 글을 조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료 1] “그래서 아빠가 졌다. 그리고 내가 이겼다.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놀고 싶다.”

[자료 1]에서 학생은 아빠와의 놀이 결과를 ‘아빠가 졌다’, ‘내가 이겼다’로 제시한 뒤, 곧바로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놀고 싶다’고 서술한다. 이때 사건의 결과와 그에 대한 감정, 그리고 미래의 기대가 하나의 연속된 의미 단위로 조직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즉, 이 텍스트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승패 보고가 아니라, 그 경험이 학생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례는 사건 자체보다 경험의 정서적 의미가 텍스트를 묶어 주는 경험 서술형의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료 12] “엄마가 싱글생글 웃었다. 엄마가 웃어서 나도 싱글생글 웃었다. 엄마가 나를 꼭 끌어안았다. 너무 행복했다.”

[자료 12]에서도 어머니의 웃음, 화자의 웃음, 포옹, 행복감이 연속적으로 제시되면서 사건과 감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결합된다. 즉, 이 글은 사건 자체의 전개보다도 그 사건이 불러온 정서

적 반응을 중심으로 응집성이 형성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다. 설명 혼합형 구조

설명 혼합형 구조는 총 2편(12.5%)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서는 사건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유나 배경을 설명하는 문장이 함께 제시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즉, 사건을 제시한 뒤 그 상황의 이유나 맥락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글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은 전체 일기 가운데 비교적 적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 저학년 학생의 일기 글쓰기에서 설명 중심의 서술보다는 사건 경험 중심의 서술이 주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료 4] “왜냐하면 팩모래시계를 써서 뒷면이 있는 카드 다섯 장을 뽑았는데 특별한 무지개 카드를 뽑았다.”

이 사례에서는 사건 서술과 함께 사건의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이 제시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료 6] “그런데 무릎뼈에 금이 갔다고 했다. 그래서 김스를 2개월 동안 했다.”

4. 의미 연결 문제

일부 텍스트에서는 접속 표현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 간 의미 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사건 전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표 6〉 의미 연결 문제 유형

유형	설명	빈도
문제 없음	문장 간 사건 흐름과 의미 관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됨	9
인과 관계 불명확	사건의 원인과 결과 관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음	3
사건 전개 단절	문장 간 의미 연결이 약하여 사건 흐름이 갑작스럽게 전환됨	3
제목과 내용 연결의 약함	제목과 실제 서술된 사건 사이의 연결성이 약함	1
합계		16

분석 결과, 일기 16편 가운데 7편에서 의미 연결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과 관계 불명확과 사건 전개 단절이 각각 3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제목과 내용 연결의 약함은 1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 접속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사건 간 의미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는 능력은 아직 발달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접속 표현의 사용이 곧 의미적 응집성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표면적 연결과 의미 조직 능력이 분리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인과 관계 불명확

인과 관계 불명확은 사건이 제시되었으나 그 원인이나 결과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문장 간 의미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은 사건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원인이나 결과를 설명하는 표현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료 10] “물을 주었으니 쑥쑥 크겠지? 두 달 뒤에 가봤다. 하나도 안 컸다. 그래도 괜찮을 거야. ‘이제 물 안 줘’라고 생각했다.”

[자료 11] “그래서 너무 좋았다.”

[자료 10]의 앞부분에서 학생은 식물에게 물을 준 일을 ‘쑥쑥 크겠지?’라는 기대와 함께 제시한다. 그러나 두 달 뒤 식물이 자라지 않았다는 관찰 뒤에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나 자신이 그 원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곧바로 ‘이제 물 안 줘’라는 결론으로 넘어간다. 즉, 이 사례는 사건의 순서는 제시되지만 기대-실망-판단의 의미 관계가 충분히 언어화되지 않아, 독자가 그 사이의 인과 과정을 스스로 메워야 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이 텍스트는 접속 표현이나 시간 순서 제시만으로는 응집적 의미 연결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자료 11]의 ‘그래서 너무 좋았다’ 역시 앞선 문맥을 통해 전화가 멈춘 상황에 대한 안도감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감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시적으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이는 학생이 경험의 핵심 감정을 먼저 표현하고, 그 감정을 뒷받침하는 원인 설명은 충분히 조직하지 못한 양상을 보여준다.

나. 사건 전개 단절

사건 전개 단절은 앞 문장에서 제시된 사건과 다음 문장의 내용이 충분한 연결 없이 갑작스럽게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학생들이 사건을 기억나는 순서대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문장 간 논리적 연결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료 8] “멋진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를 타서 무서웠다.”

[자료 10] “시원한 물이 튕졌다. 아, 차가워! 으으으으 화가 났다.”

[자료 8]에서는 공항 도착부터 탑승까지의 절차가 시간 순서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학생은 공항에 간 일, 이모를 기다린 일, 체크인과 검사를 받은 일을 차례로 기록하면서 사건의 외적 흐름을 유지한다. 그러나 마지막에 제시된 ‘비행기를 타서 무서웠다’는 감정은 앞선 사건들과 정서적으로 충분히 연결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탑승 직전의 불안, 비행기 안의 상황, 혹은 처음 비행기를 타는 경험이라는 배경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발생 맥락이 다소 생략된 채 제시되는 인상을 준다. 따라서 이 사례는 시간적 배열은 유지되지만 사건과 감정의 연결 고리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응집성이 느슨해지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자료 10]에서도 물이 튕 상황, 화가 난 반응, 식물을 보고 진정한 장면이 이어지지만, 감정 변화의 계기와 관찰의 초점이 짧게 압축되어 있어 사건의 흐름이 매끄럽게 조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제목과 내용 연결의 약함

제목과 내용 연결의 약함은 제목에서 제시된 주제와 본문에서 서술된 사건 사이의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은 글의 중심 주제가 명확하게 유지되지 못할 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료 9] 제목: 피아노 결승

본문: “토요일에 피아노 결승에서 곡을 쳤는데 아주 어려웠다. 그 곡은 왕별의 비행이다. 이 곡은 아주 어려운데 다른 곡은 진혼곡이다.”

[자료 9]의 제목은 ‘피아노 결승’으로, 독자는 결승 장면 자체의 전개가 중심이 될 것을 기대하게 된다. 실제 본문도 결승에서 곡을 쳤다는 사건에서 출발하지만, 이후에는 연주한 곡의 설명,

통과 결과, 수상 소감, 가족의 반응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결승 장면의 진행이 중심 사건으로 심화되기보다는, 결승과 관련된 여러 하위 정보가 병렬적으로 배열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사례는 제목과 본문이 불일치한다기보다, 제목이 예고한 중심 사건이 하나의 초점으로 충분히 응집되지 못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VI.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작성한 일기 텍스트를 대상으로 응결성과 응집성의 양상을 분석하여 학생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텍스트 조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일기 텍스트에서는 응결성 장치 가운데 접속 표현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접속 표현은 전체 응결성 장치의 50.0%를 차지하였으며, 어휘 반복과 지시 표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문장 간 의미 관계를 형성할 때 접속 표현을 주요 연결 장치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그래서’, ‘그리고’와 같은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사건의 흐름을 이어 서술하거나 사건 간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학년 학생의 글쓰기에서 문장 간 연결이 비교적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접속어를 통해 텍스트의 응결성이 형성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둘째, 접속 표현의 의미 유형을 살펴본 결과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래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는 학생들이 사건의 결과를 설명하거나 앞선 상황과 이후의 행동을 연결할 때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일기 글쓰기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일기는 하루 동안 경험한 사건을 서술하는 글이기 때문에 사건의 발생과 그 결과를 연결하는 서술 방식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따라서 학생들은 사건을 설명할 때 ‘그래서’와 같은 인과 관계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이를 통해 사건 간 의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학생 일기 텍스트의 사건 전개 구조를 분석한 결과 경험 서술형 구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함께 표현하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건 서술 이후 “재미있었다”, “행복했다”와 같은 감정 표현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일기 글쓰기의 목적이 개인의 경험과 정서를 기록하는 데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 저학년 학생의 일기 글쓰기에서 사건 중심 서술과 함께 정서 표현이 중요한 텍스트 구성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일부 일기에서는 접속 표현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간 의미 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자료 10], [자료 11]과 같은 사례에서는 결과나 감정이 제시되더라도 그에 이르는 원인이나 맥락이 충분히 언어화되지 않아, 표면적 연결과 의미적 응집 사이에 간극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료 8], [자료 9]에서는 사건의 시간적 흐름이나 주제 관련성은 유지되지만, 감정의 전환이나 중심 사건의 초점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텍스트의 응집이 다소 느슨하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 저학년 학생이 접속 표현과 같은 문장 수준의 연결 장치는 활용할 수 있으나, 사건 간 관계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능력은 아직 발달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응결성과 응집성이 동일한 발달 경로를 따르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즉, 접속 표현과 같은 표면적 결속 장치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간 의미 관계를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능력은 별도로 발달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는 초등 저학년 글쓰기 지도에서 문장 간 연결 표현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앞의 일과 뒤의 일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문장으로 풀어 쓰게 하는 지도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Ⅶ.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작성한 일기 텍스트를 대상으로 응결성과 응집성의 양상을 분석하여 초등 저학년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텍스트 조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들의 일기에서는 접속 표현을 중심으로 한 응결성이 두드러졌으며, 사건 경험과 감정 표현이 결합된 경험 서술형 구조가 주요한 텍스트 조직 방식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텍스트에서는 접속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사건 간 의미 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인과 관계 불명확, 사건 전개 단절, 제목 중심 응집의 느슨함과 같은 응집성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 저학년 학생의 실제 일기 자료를 바탕으로 응결성 장치의 사용 양상과 응집적 의미 조직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표면적 문장 연결과 텍스트 수준의 의미 조직이 동일한 속도로 발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기초적 분석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 저학년 학생의 글쓰기에서 표면적 연결 장치의 사용과 텍스트 수준의

의미 조직 능력이 동일한 수준으로 발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학생들은 문장 간 연결 표현을 활용하여 사건을 이어 갈 수 있으나, 사건의 원인·결과·전환·감정의 맥락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직하는 데에는 아직 제한을 보였다.

따라서 초등 저학년 글쓰기 지도에서는 접속 표현과 같은 문장 수준의 연결 장치 사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간 의미 관계를 분명히 설명하며 텍스트 전체의 흐름을 조직하는 능력을 함께 지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동일 학급 학생의 일기 16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분석이라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 저학년 글쓰기의 보편적 발달 양상을 단정하기보다, 해당 시기 학생 텍스트에서 응결성과 응집성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보여주는 기초 자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학년과 맥락의 학생 텍스트를 대상으로 응결성과 응집성의 발달 양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논문 투고일: 2026. 01. 29. ※ 논문 수정일: 2026. 03. 29. ※ 게재 확정일: 2026. 03. 30.

〈참고문헌〉

- 교육부(2024). **초등학교 국어 1-2**. 서울: (주)미래엔
- 교육부(2024). **초등학교 국어 1-2 교사용 지도서**. 서울: (주)미래엔
- 교육부(2024). **초등학교 국어 2-1**. 서울: (주)미래엔
- 교육부(2024). **초등학교 국어 2-1 교사용 지도서**. 서울: (주)미래엔
- 이재원(2018). **텍스트 언어학사. 연대기학에서 메타히스토리오그래피로**. 서울: (주)이환디앤비
- 김정선(2020). 초등학교의 일기 텍스트에 나타난 결속 표지에 대한 종적 연구. **한국언어문화**, (73), 125-152.
- 신현재 외. (2017). **초등국어교육학 개론**. 서울: 박이정
- 안정아(2013).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텍스트 구성 능력 연구-일기 텍스트를 중심으로. **배달말** (53), 427-455.
- 안정아, 남경완(2016). 초등학교 일기 텍스트의 접속 표지 연구. **어문논집**, (77), 177-207.
- 양명희(2016). 현행 형법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텍스트 구조, 유형, 문법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40, 113-136.
- 오세정, 안정오(2020). 서도잡가 ‘배따라기’ 가사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결속구조와 결속성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48, 123-145.
- 이정란, 오재혁(2019). 초등학교의 일기 텍스트에 나타난 접속부사 사용 양상 연구. **영주어문**, 42, 61-88.
- Halliday, M. A. K., & Hasan, R(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Beaugrande, R., & Dressler, W(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

〈Abstract〉

An Analysis of Cohesion and Coherence in Diary Texts Written by Second-Grade Elementary Students

Je, Soyang¹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ext organization in lower elementary students' writing by analyzing the aspects of cohesion and coherence in diary texts written by second-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16 diary texts written by students in the same class were selected as the data for analysis. The study focused on the use of cohesive devices such as conjunctions, references, and lexical repetition, as well as the patterns of event structure and semantic connections between sentences.

The results showed that, in terms of cohesion, conjunctions were used most frequently, followed by lexical repetition and reference expressions. In particular, conjunctions such as "and" and "so" functioned as major devices linking events within the text. In terms of coherence, the experiential narrative structure, which combines event description with emotional expression, appeared most frequently. However, in some texts, semantic connections between sentences were not sufficiently explained, resulting in weakened coheren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cohesion and coherence in lower elementary students' writing based on actual student texts.

Keywords : elementary students' writing, diary texts, cohesion, coherence, conjunctions, text organization

1. Educational Supervisor, Busan Bukbu District Of Education, yoshi77@korea.kr (Lead Author)